

'현우경' 이야기 (42)

대시의 깨달음 ㊦

대시의 여행은 계속 된다. 그는 가족을 도살해 고기를 파는 백정, 들짐승들을 함부로 죽여 돈을 버는 사냥꾼, 물고기를 잡는 어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의 공통점은 살생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시는 그들의 삶을 살펴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저 짐승들은 생계를 위해 짐승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 저들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져 어둠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대시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다. 짐승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고민 끝에 집으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고자 결심을 하게 된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이 그저 반갑기만 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찌 얼굴이 이리 수척한 것이냐?" "아버지 제게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소원이란?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내가 너를 위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저는 밖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 몸과 마음이 고달프게 노동할뿐 아니라 생명 가진 것들을 죽이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원컨대 큰 창고를 열어 주신다면 제가 그들을 위해 배풀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네 뜻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재물을 모은 것은 모두 너를 위해서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하겠느냐. 내 창고를 열어 줄테니 마음껏 보거라"

대시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전국에 방을 붙여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다.

"지금 내 아들 대시가 큰 보시를 하려 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방을 붙이자 사문과 바라문과 빈궁한 이, 빛진 이, 외로운 이, 병든 이 모두가 대시의 집앞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대시는 웃이 필요한 자에게는 웃을 주고



삽화 · 강병호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었고 병이 든 자에게는 약을 주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쌓여있던 재물을 나누어주자 창고는 하루만에 텅텅 비어 버렸다. 하지만 아직 집앞에는 대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작은 창고나마 있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더 쓴다는 것은 무리였다. 대시는 고민했다.

"아들 된 도리로 부모의 창고를 모조리 비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작은 창고에는 남은 물건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어 내 마음이 만족하도록 짐승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사람들은 제 각각 자신의 식견대로 대답을 해주었다. 사냥, 농장 경영, 장사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그리고 어떤 이는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농사를 짓고 가족을 기르고 멀리 나가 장사를 하는 것은 내게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익을 얻는다 해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다에 들어가는 보물을 찾는 일은 해볼만하다. 나는 기어코 힘써 이 일을 성취하리라"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가서 말했다. "저는 지금 바다에 들어가 많은 보배를 구해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을 보시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원컨대 허락하십시오 제가 뜻한 바를 이루게 하소서"

대시의 부모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절박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 어찌 목숨을 내놓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 하느냐? 정말 보시를 하고 싶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시하여라. 제발 그 위험한 바다에는 가지 말거라. 아니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절대 바다에는 들어갈 수 없다"

부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짐승

구제에 대한 원을 접을 수 없었다.

"만일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는 이 땅에 얽혀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네가 절대 바다에 들어가는 일만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런 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시는 고집을 피웠고 몇날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부모는 가슴이 아팠지만 대시의 완고한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 정 네 뜻이 그러하다면 길을 떠나거라. 우리는 그저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이다"

대시는 자신의 뜻을 두루 알리려 누구든지 가고 싶은 이가 있다면 같이 가자고 했다. 그때에 보석상 오백 명이 대시와 함께 동행하기로 한다. 이제 대시는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오백명의 보석상과 바다로 향했다. 왕과 대신과 많은 백성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으며 제각기 값진 보물을 주어 그들을 격려했다. (다음 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44 - 은혜를 갚은 자라 - 구성·김흥인

Comic strip panels showing a man in a green uniform (the King) and a man in a red uniform (the merchant) interacting. The King is grateful for the merchant's help and rewards him with gold and a horse. The merchant then helps the King's horse and is rewarded with gold and a horse. The King then rewards the merchant with gold and a horse. The merchant then helps the King's horse and is rewarded with gold and a horse. The King then rewards the merchant with gold and a horse. The merchant then helps the King's horse and is rewarded with gold and a horse.

Advertisement for 'Tanghwa Chongdongbul' (唐화 청동불상 전문) featuring images of Buddhist statues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and prices. It includes a list of prices for different sizes of statues (1,000, 3,000, 10,000 won) and a section for 'Four Generations Tradition' (四代傳統) with a list of items like 'Gyeongso Sanpa Gyebo-do' and 'Gumhyo-dang Yakho'.

Advertisement for 'Hidamseok' (희담석) featuring images of the stone products and text describing their benefits for health and sleep. It includes a list of prices for different sizes of mats (1, 2 person use) and a section for 'Hidamseok' (희담석) with a list of items like 'Hidamseok Onyeometeo' and 'Hidamseok Yumjukgoli'.